

건물 준공 후 몇 년 쯤이 가장 멋질까요? (건축물 사후평가제도 시행에 덧붙여)

How many years will a building need from its completion to have the best look?

조현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필자는 동네 미장원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며 간단하게 머리를 깎고 있다. 언젠가 단골 미용사에게 ‘머리 깎을 때 어느 시점에 가장 보기 좋도록 고려하느냐’고 물어보니, 보통 머리 깎고 일주일 후가 가장 보기 좋도록 머리정리를 해 준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게, 3~4주 만에 한 번씩 깎으니 그 기간 중간 이전에 가장 보기 좋도록 배려한 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건축물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평소 우리가 설계하는 건축물은 준공 후 어느 시점이 가장 기능적으로, 미학적으로 좋은 건축물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곤 했다. 대개 준공 직후엔 번쩍이며 그 자태를 뽐내던 건축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흉물로 변하는 걸 적잖게 보아왔던 터라... 더구나 최근엔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가 강화되고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 시점이라, 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 현행 사후평가제도의 법적 내용은 어떠한가.

건기법 시행령에 의하면, 평가기준은 공사비 500억 이상, 준공 이후 3년~5년, 이내이며 사후평가 내용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타당성조사의 내용과 실제사항의 차이, 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물리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아쉬운 것은 보다 미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기준이 포함될 수가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 이 기준은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키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리라 보지만,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보다 좋은 건축물을 지향하는 우리 직업의 속성상 이 기준도 어디엔가 포함되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하여튼 이런 제도들이 정착되므로 해서 설계 시에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계 작업에 임할 수 있다면 한결 나은 건축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준공 후 이용자

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전면 유리 커튼월의 공공청사들을 예로 들어보자. 이 건물들도 현상설계를 거쳐 가장 잘 디자인된 것으로 평가받아 채택된 것이리라. 문제는 투시도상의 효과가 심사위원들을 현혹시켜 실제로 건축물에서 중요한 점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한때는 이런 유의 유리 건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현상설계에서 당선되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최근엔 이런 유가 반면교사가 되어 보다 절제된 유리사용을 추구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반대의 경우로 본인이 매주 접하는 교회건물을 보면, 독창적인 건축가의 디자인으로 지은 지 30년이 되는데도 거의 처음 디자인을 잘 유지하며 세월의 흔적과 손때를 훈장처럼 갖고 닦아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당시의 훌륭한 설계의도를 잘 이해하는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요즘도 많은 건축학도들의 순례코스가 되고 있어 이미 작고한 건축가도 저승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제도는 그동안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의 법적 뒷받침을 거쳐 건축물들도 본격적인 평가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개발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이 지면을 빌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협회에서 건축대상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건축물 사후평가제도를 시행해보는 방법이다.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 외에 필요한 추가항목을 넣어 진짜 좋은 건축물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사의 혼과 사용자의 애정이 스며 들어있는 건물을 선정해보자는 취지인데, 요즘처럼 마스크에 건축사가 뜨고 있는 상황에 일반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건축심미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인도 단골 미용사에게 우리 건축사도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 때 가장 멋져보일 건축물을 디자인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경동교회

필자는 서울대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주)동일건축에 재직 중이다. 구청 건축위원과 건기명 기술심사위원 및 법원, 검찰 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